

김승수 전주시장 첫 결재사업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시행 2주년...

전주시 대표 복지 프로젝트로 안착

김승수 전주시장은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하 엄마의 밥상) 시행 2주년을 맞은 20일 이른 새벽, 도시락 배달 업체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의 밥상은 단순히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치러야 할 따뜻한 밥상이다.



오색빛깔 덕유산 20일 무주군에 위치한 덕유산 국립공원에 오색빛깔 단풍이 들어 수려한 경관을 뽐내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매일 이른 새벽부터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은 따뜻한 밥을 준비해 배달하는 엄마의 밥상 배달업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엄마의 밥상을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함께 배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선 6기 김 시장의 첫 결재사업인 엄마의 밥상은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120세대 188명으로 시작된 이후 전주시민들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보내는 후원과 개인 정기후원, 기관 등의 성금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180세대 277명에게 365일 빠짐없이 이른 새벽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또한 엄마의 밥상의 시작은 시창이 주도했지만, 현재까지 총 4억2000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되는 등 밥 굶는 아이가 없도록 만드는 엄마의 밥상 차림에 전주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개인 정기후원과 기관 등의 성금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대표적으로, 엄마의 밥상이 지난해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복지정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소식을 접한

전국 각지의 개인 후원자 30여명이 적은 금액이지만 1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의 정기후원금을 보내오고 있다.

또한, 기관 및 기업 후원은 물론 손주·자녀의 돌과 백일을 기념해 잔치비용을 아껴 엄마의 밥상을 위해 후원하는 기부자가 나타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이 이어지면서, 엄마의 밥상을 함께 배달하기 위한 후원금 기탁도 줄을 잇고 있다.

정기기탁자와 후원자들이 보내온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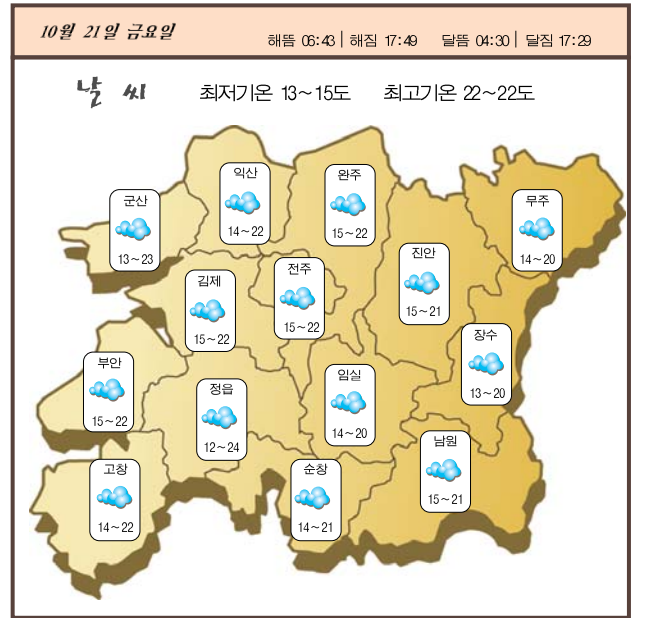
금은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간식 구입비와 생일케이크 지원, 방학 중 부식 지원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매일 아침 맛있는 아침 밥상을 받은 아이들이 깨끗하게 비운 도시락 통 안에 자신이 먹고 싶은 반찬부터 '얼른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기쁜 다짐을 적은 감사의 손편지를 넣어 돌려보내는 등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엄마의 밥상은 지난해 전주시민들이

선택한 전주시 최고 정책으로 손꼽혔다. 또, 지난해에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정책으로 소개되고 지난 8월에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취약계층 결식아동·청소년의 아침격정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 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

/김영재기자



동학농민혁명 동아시아적 의미 찾는다

오늘 전북대서 동아시아 3대 혁명 학회 개최

동학농민혁명을 동아시아의 3대 혁명과 비교해 의미를 찾아보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와 코어사업추진단이 공동으로 오늘 인문대 1호관 교수 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

박순철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인도 세 나라의 혁명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를 살핀다.

제1주제에서는 충북대 신영우

교수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전주에 대해' 발표하고 제2주제에서는 중국 남경정치학원 상해분교 화강 교수가 중국의 상제교와 조선의 천도교를 비교한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제3주제에서는 부산의국대학교 이광수 교수가 인도의 세포이 반란과 반영 독립전쟁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세 나라의 혁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의의를 되짚어 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고민형기자

유네스코 창의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전주·서울시 등 6개 창의도시 협력관계 바탕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협력 약속

전주시와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통영시 등 국내 6개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공동협력사업 발굴에 나선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병돈 인천시장, 김동진 통영시장 등 6개 국내 창의도시 대표들은 20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포럼'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 교류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국내 창의도시들은 유네스코와 각 창의도시시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협력사업 개발 △국내 정례회의 개최 및 정보 공유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창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이다.

6개 창의도시는 또, △국내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마련 △지속적인 학술행사를 통한 창의도시 발전 방향 모색 △협약체제적 공조관계를 통한 네트워크 내 활동 방안 강구 △네트워크 가입 후보도시와의 교류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지정 4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20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포럼' 둘째 날인 20일에는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희망 도시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창의도시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조티 오사그라하(Jyoti Hosagrahar)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기초 발제, 캐나다와 일본 등 해외 창의도시 협의회 사례 발

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발표 이후에는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협력 및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전주시 주관으로 전 세계 18개 음식창의도시 대표들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협력방안' 등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창의도시 간 도시경쟁력 향상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생산전문인력양성과정 개강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센터장 최희종)가 올해 익산 이전을 계기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 및 입주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전문인력양성과정'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개강식은 지난 19일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열렸으며, 24개 업체에서 34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1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번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원광대 원광식품산업연구원(원장 이영은 교수)은 식품산업과 안전정책, HACCP 실무, 생산현장 위생관리 및 이물관

리, 고객클레임 관리, 협업업체 관리, 작업안전관리 및 직장 내 양성평등을 주요 내용으로 집합교육과 현장연학 등 40여 시기에 걸쳐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최희종 센터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계기로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모두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원광대 산학협력단 최한길 단장은 "원광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익산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기자

순창이 참좋다

장류와 장수의 고향 청정순창으로 오십시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농촌이 웃는 나라 농협이 함께 합니다

Human Bank, Human Life

농협

NH농협 순창군

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서순창농협

지부장 한재현

조합장 이대식

조합장 양준섭

조합장 이두용

조합장 박봉주

순창전통고추장

복분자

금과 배

기능성 쌀

최상의 한우 참예우